

## 칠레의 사회변화와 개신교의 성장\*

주종택(순천향대 국제문화학과)\*\*

- I. 서론
- II. 역사적 변화와 종교
- III. 개신교 인구의 변화와 성격
- IV. 개신교 성장의 원인과 배경
- V. 결론

### I. 서론

식민시대에 유럽에서 전해진 천주교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에 버금가는 것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개신교의 유입과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신교가 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특징, 그리고 성장의 구체적인 원인, 개신교 신자의 특성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현대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주요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서 개신교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개신교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도 있고, 상대적으로 활동이 미미한 지역도 있다. 그중에서 칠레는 과테말라나 브라질 같은 국가와 함께 일찍부터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지금도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Jong-Taick Joo(Soonchunhyang University, jtjoo@sch.ac.kr), "Social Changes and the Growth of Protestantism in Chile".

칠레의 경우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데 유리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조건은 무엇이었고, 개신교가 활동하는데 기여했던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칠레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다른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멕시코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에서 보듯이 천주교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나 하층계급의 확산 같은 현상이 확산될 때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안의 하나로서 개신교를 찾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이나 빈곤의 증가, 사회적 차별의 심화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기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에 보다 더 우호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주종택 2000; 2004). 칠레의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는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국가별로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시기나 방식, 그리고 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마다 독특하게 반영되는 현상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칠레에서의 개신교의 성장이 다른 국가와 차이점은 무엇이고 유사한 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칠레는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고 정치경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멕시코나 브라질, 페루 같은 지역에 비해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종교나 개신교에 대한 연구도 이런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나마 지금까지 실시된 일부의 연구도 편중되어 있어서 칠레 개신교의 역사에 대한 연구(Kessler 2001; Lagos Schuffeneger and Chacón Herrera 1987; Willems 1967)나 개신교 인구의 성장 추세에 대한 연구(Cleary and Sepúlveda 1997; Löwy 199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칠레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개신교 인구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칠레의 개신교 집단이 라틴 아메리카의 개신교 세력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글에서는 개신교의 확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요인, 개신교와 천주교의 상호작용, 사회에서의 개신교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II. 역사적 변화와 종교

### II.1. 천주교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식민시대에는 천주교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818년에 칠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직자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독립 정부와 교회 지도자 사이에는 불신이 싹트게 되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의 안정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천주교의 지위를 일정한 수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중재의 결과로 1833년에 제정된 헌법에 천주교가 칠레의 새로운 정부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교회관계자들을 임명하여 바티칸에 보내서 승인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 관계자들은 정부에 모든 형태의 종교를 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천주교가 교육을 관할하고 민법은 교회법에 종속되고, 호적 등록을 교회가 담당하고 모든 묘지도 교회에서 관장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교회가 국가기관의 간섭에서 벗어날 것도 요구했다.

19세기에는 칠레의 정치에 있어서 천주교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정당의 성격에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식민시대의 사회질서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제도나 출생부터 장례까지의 의례를 교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교회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를 지지하면서 대통령이 교회 관계자들을 임명하는 것을 선호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세속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와 국가의 권한을 분리시켜서 출생, 혼인, 장례 등의 통과의례에 관한 절차는 국가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시민

권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켜서 투표에 있어서 일인일표제를 실시할 것을 추구하였다. 1861년과 1891년 사이에는 자유주의자들의 힘이 강해서 교회의 권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권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이 작성되는 1925년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갈등은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18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천주교 내부에서는 그동안의 교회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보수주의자와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대립이 일어났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도 허용할 것을 인정하고 국가의 법을 존중하여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만 교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80년대가 되어서 칠레 정부와 바티칸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서 이런 세속적인 주장은 거의 수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국가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어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

20세기 초에 천주교 이외의 종교를 허용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면서 천주교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하층계급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일부의 진보적인 천주교의 성향은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1957년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기독교민주당(PDC: Partido Demócrata Cristiano)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기독교민주당은 기존의 보수적인 천주교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성과 농촌분야에서 이런 영향은 두드러졌다. 이런 변화의 하나로 그동안 지주 계층을 옹호하던 천주교에서 토지개혁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 조금씩 진보적인 색채를 표방하기도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도시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인 교회기초공동체(CEB: Comunidades Eclesiales de Base)를 실시해서 하층계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천주교회에서 해방신학을 지지하는 사람

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1950년대가 되면서 천주교회가 사회정의나 개혁과 같은 진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좌파정당이 등장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천주교회의 일부의 진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권과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 일부의 천주교 관계자들이 ‘사회주의를 위한 기독교인’ 모임을 만들어서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도왔지만, 천주교 지도자들은 사회주의정부가 공립학교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교육시켜서 사회에서 이미 쇠약해진 교회의 영향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옌데 정권이 붕괴되자 많은 주교들이 쿠데타를 환영했고 종교의식을 통해 군사정부를 합법화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의 천주교 성직자들은 인권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교회내에서 충돌을 빚었다. 진보적인 성직자들은 탄압을 받는 지식인, 정당과 노조 지도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난처를 제공했다. 동시에 피노체트의 하야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장군이 주도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천주교회는 개신교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권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이런 인권조직은 17년 동안의 군부독재 기간에 해외의 개신교 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꾸준히 인권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군사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천주교회는 일반 대중과 노동자들의 조직결성도 지원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등장하면서 칠레의 천주교회도 다시 약간씩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다시 진보적인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이 천주교 내에서 다시 대립하게 되었다. 1989년에 중도좌파의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 대통령에 이어서 1993년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어 천주교회는 서서히 정치적 영역에서 물러났다. 보수적인 주교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독교민주당과의 관계도 냉각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 보수적인 안전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했

다. 예를 들면 칠레가 늦게까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 천주교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낙태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과의 대립은 약화되었지만 천주교회는 늘어나는 개신교 신자에 의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고통과 혼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를 하였고,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특히 도시의 관자촌과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는 개신교의 확장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천주교 인구의 비율은 197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다. 1970년까지 천주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90%였으나 1992년에는 76.9%로 줄고 2002년에는 69.96%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신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 일부의 천주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적극적인 선교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천주교는 오랫동안 성직자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1960년대에는 천주교 성직자의 수가 2,300명에서 2,500명 수준이었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외국에서 출생했다(Library of Congress 1994). 1990년이 되면 성직자 1명이 천주교 신자 3,000명당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760개 교구에서 성직자가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개신교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산티아고 일대의 지역만을 보면 천주교회는 470개에 불과하지만 개신교회는 1,150개가 존재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II.2. 개신교의 등장과 정착

식민시대에 이어 독립 이후에도 천주교의 영향력이 강력했지만 1820년대에 최초로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와 교회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천주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집 같은 사적인 공간이나 공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선호

한 반면에 천주교는 이런 견해에 분명히 반대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해외에서 온 이주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독립 이후에 칠레 정부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직접적인 교역체계를 수립했다. 이렇게 되면서 수도인 산티아고(Santiago)와 가까운 항구도시인 발파라이소(Valparaíso) 같은 지역에서 영국이나 그밖의 나라에서 온 비천주교신자들이 큰 규모의 상업지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외교관이 들어오면서 이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권리를 요청하였다(Lagos Schuffeneger and Chacón Herrera 1987, 16).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이 신앙을 위한 법적, 사회적 공간을 요구하게 되면서 칠레사회 내부에 개신교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칠레 정부로서는 이들의 종교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대국들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출입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게다가 1840년이 되면서 칠레 정부는 남부의 호수지역에 독일에서 온 이주민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칠레 정부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개신교 신자가 많은 지역에서 오게 되면서 개신교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렇듯 유럽과 미국에서 온 이주자들에 의해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등의 성직자들이 이민자들을 따라서 들어왔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97).

최초의 개신교 성직자들이 들어온 것은 1819년으로 ‘영국 및 해외 성서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에서 보낸 대표들이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그런 다음에 성공회 관계자들이 발파라이소에 2개의 교구를 설립했다. 1820년대 초에는 ‘영국 및 해외 성서회’에서 주관하여 천주교 수도원을 고쳐서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에 학교를 세웠다. 1821년에는 제임스 톰슨(James Thompson)이라는 침례교 목사가 칠레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학교를 세웠다. 이어서 발파라이소의 영국 외교관 지역에서 최초로 성공회 신부가 예배를 시작했다. 뒤이어 1845년에는 미국에서 데이비드 트럼불(David Trumbull)이 칠레의 발파라이소에 장로교회를 세웠다. 그는 최초로 칠레인들을 복음화시키

는 데 앞장섰으며 특히 칠레에서 천주교이외의 다른 종교가 법적, 공민적 권리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칠레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선교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어서 1840년 이후에는 독일 이주자, 영국 기술자와 광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루터교와 장로교회가 칠레에 왔다. 다음으로 1870년이 되면 감리교, 안식일 교회, 침례교, 구세군 등의 개신교가 줄을 이어 들어왔다.

칠레에서 개신교가 별다른 탈이 없이 19세기에 칠레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 사이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 사이에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도 개신교 입장에서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즉 스스로 열성적인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천주교의 중요한 종교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98). 이런 여러 조건에 의해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천주교나 사회의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심각한 저항을 별로 받지 않았다.

초기에는 이들의 종교행위는 관계당국에 의해 단지 묵인되기만 했지만, 1865년에 천주교를 국가의 공식종교로 인정한 헌법을 재해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천주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실천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주로 이민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던 개신교 세력은 서서히 칠레 사회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이 되면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칠레인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예를 들면 성공회는 마푸체(Mapuche)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교회를 세웠고 미국의 감리교는 1880년에 산티아고에 대학을 설립해서 칠레의 중상류층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노력은 천주교이외의 대안교육을 모색하던 많은 칠레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와 교육활동은 칠레인들로부터 별다른 반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것은 초창기에는 이런 모임들이 주로 문화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자유주의적인 이념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



반이 되면서 개신교가 공격적인 선교를 하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칠레인들은 조금씩 반감을 갖기 시작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천주교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자신들이 배척을 당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Kessler 2001, 46).

칠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신교 집단인 오순절 교회의 역사는 감리교회와 연관이 있다. 감리교는 처음으로 1891년이 되어 칠레인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1905년이 되면서 감리교회 의에서 배척된 윌리스 후버(Willis C. Hoover)라는 선교사에 의해 발파라이소와 산티아고의 교회 신자들이 떨어져 나왔다. 이들은 1910년에 기존의 감리교회에서 나와서 칠레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인 ‘감리파 오순절교회’(Iglesia Metodista Pentecostal)를 창립했다. 이 교회는 1933년에 다시 ‘복음주의 오순절교회’(Iglesia Evangélica Pentecostal)로 분리되었다. 이 두 교회가 그후에도 칠레의 주요한 오순절 교회가 되었다. 오순절 교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개신교 집단은 끊임없이 분열을 하게 된다. 이런 분열은 일부 성직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었고, 새로운 신자들을 끌어들이어서 교회성장에 공헌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분열은 개혁과 혁신의 실험실이 되었다(Kessler 2001, 339). 다시 말해 분열을 통해서 소규모의 교회를 만들면서 신자들과 성직자 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시켜서 선교에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다(Claro Jara 2001, 14).

칠레의 오순절 교회는 최초로 시작되었던 산티아고나 발파라이소가 아니라 남부지역인 콘셉시온(Concepción)에서 푸에르토 몬트(Puerto Montt) 지역 사이에서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냈다. 오순절교회가 성장을 시작하던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이 지역은 미개척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지역이어서 손쉽게 선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여건 아래에서 오순절 교회는 193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유지했다. 1925년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팔마(Arturo Alessandri Palma)에 의해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개신교의 활동에 제약이 되었던 조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와 국가간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긴장요인이 없어졌다. 특히 1940년대에는 중부지역과 산티아고의 빈민층 사이에도 상당한 선교의 성과를 얻었다. 1929년과 1961년 사이에 오순절 교회의 신자는 약 24배 정도 늘어났다. 1960년대에 와서 약간 주춤하기는 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급격한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고 있지만 오순절 교회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칠레에서는 상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 신자를 하층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소규모의 장인, 반숙련 노동자와 같은 저소득 계층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칠레에서 새로운 종교적 전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극제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교회의 창립, 신자의 확대, 지도자의 양성 등 대부분의 사업이 칠레 출신의 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특히 오순절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을 ‘크리오요 오순절 신자’(criollo Pentecostals)라고 부른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100; Lagos Schuffeneger and Chacón Herrera 1987, 17). 이것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회’와 같이 나중에 칠레에 들어온 세계적인 오순절 교회와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초기의 오순절 교회가 외부의 영향보다는 칠레의 국내적 요인에 의해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에는 개신교가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면서 활동범위를 늘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개신교는 피노체트 정부의 확실한 후원을 받았고 독재 정권이 종식 된 다음에도 다양한 조직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이들의 활약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칠레의 ‘감리파 오순절 교회’의 대표인 하비에르 바스케스 발렌시아(Javier Vásquez Valencia)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에두아르도 프레이의 초청을 받아서 ‘빈곤 퇴치 위원회’에 참여했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에도 관여했다. 또한 오순절 교회는 1999년의 선거에 최초로 성직자인 살바도르 피노(Salvador Pino)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가졌

다. 물론 충분한 지지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후보로 공식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사건은 변화된 개신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에 개신교 후보의 등록이 무산되자 개신교 집단은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양분되어 정치적 힘을 분산시켰다. 오순절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은 보수적인 후보인 호아킨 라빈(Joaquin Lavin)이 개신교에 반대하는 천주교 조직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연합 후보였던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를 지지했다. 반면에 살바도르 피노는 호아킨 라빈인 원칙과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그를 지지했다. 이렇게 되면서 개신교 내부의 알력이 심화되기도 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는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냉각기를 갖게 된다. 특히 개신교의 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서 선교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공격적인 선교가 진행되고, 천주교에 대한 비판이 개신교 내부에서 일어나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다(Thurston 2000, 1241). 개신교에서는 정부가 은밀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우대하고 개신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고 불평을 한다. 예를 들면 천주교 행사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의 개신교 성직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개신교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1993년과 1999년의 선거에서는 각각 에두아르도 프레이와 리카르도 라고스가 당선되면 개신교를 탄압하거나 개신교가 거리에서 선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리카르도 라고스의 당선 이후에 천주교는 개신교의 선교방식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1956년에 들어온 모르몬교와 1930년에 온 여호와의 증인이 신자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하면서 천주교 측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천주교 주교들은 이들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대중을 선동하며 진리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천주교와 개신교는 대립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예를 들면 천주교는 이혼에 반대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이혼을 허용하는 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 Ⅲ. 개신교 인구의 변화와 성격

칠레는 식민시대에도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꾸준하게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이주자들이 들어왔다. 그런 까닭에 19세기 말부터 개신교 인구들이 항구나 수도 등 외국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세기 초기만 해도 개신교의 인구는 별로 많지 않았다. 1952년 이전의 개신교 인구비율은 1907년 1.0%, 1920년 1.4%, 1930년 0.8%, 1940년 2.4%, 1952년 4.1%로 1950년대가 되어서야 4%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개신교회의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2년에 20만명을 약간 넘는 개신교 인구가 1970년에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1992년에는 100만명을 훨씬 넘었다. 10년 뒤인 2002년에는 거의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개신교 인구의 성장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종교별 인구수(단위: 명)

연도	총인구	천주교	개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정교	기타종교	무종교
1952	5,932,995	5,313,473	240,856	11,496	956	3,394	173,103	189,717
1970	8,884,768	7,186,413	553,040	16,359	1,431	3,889	17,980	1,105,656
1992	9,660,367	7,409,528	1,278,644	-	-	-	409,910	562,285
2002	11,226,309	7,853,428	1,922,555	14,976	2,894	6,959	493,147	931,990

\* 1970년의 무종교에는 응답하지 않은 인구도 포함

\* 1992년은 14세 이상 인구

\* 2002년은 15세 이상 인구

\* 개신교 인구에는 여호와의 증인과 모르몬교 신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INE 2002, 1992, 1970, 1952

2002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천주교 신자는 70.0%, 개신교는 15.1%, 기타 종교는 4.4%, 그리고 무종교는

8.3%이다. 1992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전체 14세 이상 인구 중에서 천주교 신자는 76.7%, 개신교는 13.2%, 기타 종교는 4.2%, 그리고 무종교는 5.8%였다. <표 1>을 참고하면 천주교 신자는 1970년 이후부터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하고 있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32년 동안 겨우 66만여명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개신교 신자는 1952년 이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과 2002년 사이에 무려 136만여명이 늘어났다. 이것을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근래에 와서 개신교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교 전체를 놓고 보면 칠레에서 개신교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의 다양화가 확연하게 발생한 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질문항목이 상이해서 통계상의 변화가 심한 1970년을 제외하면 기타종교의 인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탈종교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1970년도에 무종교의 인구는 불과 3%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30년 동안 거의 3배 정도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종교인구 성장률(%)

연도	천주교	개신교	기타종교	무종교
1952-1970	35.25	129.61	-79.01	482.79
1970-1992	3.10	131.20	933.59	-49.14
1992-2002	5.99	50.36	26.36	65.75

자료: INE 1952, 1970, 1992, 2002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교인구 성장률을 보면 천주교는 인구증가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개신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952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연평균 5-6%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당분간 개신교 인구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52년에서 1992년까지의 성장률에 비해 1992년에서 2002년의 증가율이

약간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개신교 인구가 예전같이 높은 비율로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개신교 신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반면에 천주교 신자의 증가율이 미미한 것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실시한 ‘공공 교육센터’(CEP: Centro de Estudios Públicos)의 조사에 의하면 천주교 신자의 95%가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 신자인데 비해, 개신교 신자는 38%만이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를 믿었다고 한다. 또한 조사 당시에 26%의 개신교 신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개종한 것으로 답했다([www.cepchile.cl](http://www.cepchile.cl)). 즉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신교 집단의 공격적인 선교가 상당히 효율적이었으며, 이것이 천주교가 정체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지역별로 개신교 신자의 분포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우선 타라파카(Tarapacá),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아타카마(Atacama)같은 북부지역은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13-15%로 평균보다 약간 낮다. 이지역의 일부는 원래 볼리비아나 페루에 속해 있었고 상대적으로 유럽인들이 진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코킴보(Coquimbo), 발파라이소, 베르나르도 오히긴스(Libertado General Bernardo O'Higgins) 등의 중부지역은 9-12%로 최남단인 파타고니아(Patagonia) 지역과 유사하게 매우 낮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개신교가 처음으로 유입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수도인 산티아고에 인접한 지역이어서 천주교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오비오(Biobío), 아라우카니아(Araucanía), 로스 라고스(Los Lagos) 등의 남부지역은 20-3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종교와 무종교의 인구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지역은 현재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마푸체 원주민들이 다수 거주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족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겠다. 수도인 산티아고 지역도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돌고 있다. 이것은 중부지역과 마찬가지로의 영향일 것이다. 산티아고 지역에서는 무종교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표 3> 지역별 종교인구 비율(2002년)

지역	15세이상 인구	천주교	개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정교	기타종교	무종교
칠레 전체	11,226,309	69.96	17.13	0.13	0.03	0.06	4.39	8.30
1 지역 Tarapacá	314,169	70.86	15.40	0.07	0.09	0.04	4.83	8.71
2 지역 Antofagasta	361,138	71.71	14.25	0.03	0.02	0.03	4.84	9.12
3 지역 Atacama	182,203	75.97	13.27	0.04	0.03	0.02	3.56	7.10
4지역 Coquimbo	439,128	81.66	9.35	0.04	0.02	0.02	3.28	5.63
5지역 Valparaiso	1,164,931	75.45	11.94	0.07	0.03	0.04	4.99	7.47
6지역 L. Gral. Bernardo O'Higgins	571,337	79.08	12.94	0.02	0.02	0.07	2.47	5.40
7지역 Maule	667,603	75.79	15.89	0.03	0.02	0.01	2.90	5.37
8지역 Biobío	1,373,817	58.63	30.12	0.05	0.01	0.02	3.36	7.79
9지역 Araucanía	632,634	64.42	25.39	0.11	0.01	0.02	3.98	6.06
10지역 Los Lagos	786,483	70.77	19.38	0.04	0.01	0.02	3.48	6.29
11지역 Aisén del Gral. Ibáñez del Campo	65,484	71.94	16.60	0.03	0.02	0.03	2.87	8.51
12지역 Magallanes la Antártica Chilena	115,415	79.70	10.19	0.02	0.01	0.02	3.27	6.78
13지역 Santiago	4,551,967	68.74	15.14	0.25	0.03	0.11	5.35	10.37

자료: INE 2002

천주교인구의 비율만 보면 코킴보 지역이 81.66%로 가장 높고, 비오비오 지역이 58.63%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천주교나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공공교육센터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종교행위에 있어서도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의 비율은 개신교가 46%인데 비해 천주교는 18%에 머물렀다. 즉 개신교 신자들에 종교행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 종교의 관계를 알아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높다. 2002년 인구센서스의 자료를 통해 교육수준에 따른 개신교 인구의 비율을 보면, 문맹(23.10%), 취학전 교육(22.18%), 특별교육(19.71%), 초등교육(21.40), 중등교육(16.99%), 고등교육(9.64%)으로 되어 있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개신교 인구 비율이 대단히 낮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육수준과 개신교 신자의 비율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개신교의 선교가 주로 경제적으로 하층계급에 속하면서 사회의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선교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학력자들이 개신교 신자로 많이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2년도의 종교현황 중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천주교 신자의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75세 이상으로 79%가 천주교 신자이다. 반면에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천주교 신자의 비율이 66%에 불과해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보면 15세이상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 7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낮다. 즉 연령이 낮을 수록 개신교에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은 무종교의 비율도 11.1%로 가장 높아서 종교에 대한 반감이나 무관심이 늘어남을 것을 증명한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가 5,760,651명인데 비해 개신교 인구는 1,060,533명이어서 18.41%를 점유하는데,



남성은 전체 5,465,658명 가운데 개신교 인구가 862,382명으로 15.78%를 차지해서 남성의 개신교 신자 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개신교가 여성들에게 새로운 지위와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고 남성 중심의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 개신교 신자들이 많다(Collier 1994, 59; Rostas 1999)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지역별 개신교 인구의 변화

지역	1992	2002	증가율(%)
칠레 전체	1,278,644	1,922,555	50.36
1 지역 Tarapacá	24,477	48,369	97.61
2 지역 Antofagasta	27,990	51,453	84.10
3 지역 Atacama	14,691	24,171	64.53
4지역 Coquimbo	23,477	41,076	74.96
5지역 Valparaiso	84,520	139,115	64.59
6지역 L. Gral. Bernardo O'Higgins	46,724	73,943	58.25
7지역 Maule	79,963	106,096	33.69
8지역 Biobío	309,271	413,888	33.83
9지역 Araucanía	118,382	160,603	35.67
10지역 Los Lagos	104,290	152,395	46.13
11지역 Aisén del Gral. Ibáñez del Campo	6,757	10,873	60.91
12지역 Magallanes la Antártica Chilena	7,492	11,759	56.95
13지역 Santiago	430,610	689,174	60.05

<표 4>를 통해 1992년과 2002년 사이의 개신교 인구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오비오, 아라우카니아, 로스 라고스 지역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마울레(Maule) 지역과 더불어 비오비오, 아라우카니아 지역은 30%대에 머물고 있어서 이 지역의 개신교 인구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에 타라파카나 안토파가스타 지역은 각각 97.61%와 84.10%로서 전국에서 최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개신교 인구가 적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개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인 산티아고와 중부지역도 전국평균보다는 높은 비율로 개신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의 개신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개신교 인구가 적은 지역은 성장률이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유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30%를 넘으면 새롭게 천주교 신자를 개신교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IV. 개신교 성장의 원인과 배경

##### IV.1. 정치적 요소

칠레의 개신교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데에는 주어진 정치적 조건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개신교는 19세기부터 정치지도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정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초창기에는 개신교가 칠레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최대한 종교활동에 유리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오순절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 신자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칠레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점이 많다(Bowen 1996, 18-19). 실제로 1960년 말에 실시된 하층계급의 개신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참고하면 사회적, 정치적 견해에서 보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신자들의 투표행위를 보면 칠레의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고 상당수는 좌파 정치인에게 표를 던졌다(Parker 1996, 146).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칠레의 개신교 특히 오순절 교회에서 독재 정권이나 우파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은 정치적 이념에 따르기보다는 열악한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tewart-Gambino and Wilson 1997, 235).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아옌테를 지원했듯이 피노체트를 지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1970년이 되면서 칠레의 개신교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옌테 정부에 평신도들과 일부의 관계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거부감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즉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아옌테를 소극적으로 지원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종교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피노체트 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군사정부를 지원하면서 개신교 선교에 유리한 사회적 영역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오순절 교회와 기타 개신교 그리고 보수적인 일부의 천주교 지도자들은 군부의 결정과 정책에 동조했다. 32명의 개신교 대표들은 사회주의를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군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쿠데타가 사탄과 같은 사회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했다(Löwy 1996, 113; Thurston 2000, 1223). 이어서 많은 개신교 관계자들이 피노체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심지어 1987년에

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미국의 텔레비전 선교사인 지미 스와거트(Jimmy Swaggart)가 칠레를 방문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피노체트를 지지하고 개신교 신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런 개신교의 지지에 대한 응답으로 피노체트는 가장 큰 개신교회였던 '감리파 오순절교회'의 후원자가 되었다(Gill 1993, 192; Stoll 1990, 111). 더욱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 개신교회에 다양한 특권과 보상을 주었다. 개신교 목사와 그의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새로운 교회건물의 신축에 재정지원을 하기도 했다(Thurston 2000, 1225). 또한 개신교 목사에게 종교부 장관을 제의하고 군인들에게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등 정부의 일에 개신교 세력을 참여시키려고 했다(Westmeier 1999, 45). 이와 함께 군사정부의 통제가 심해지면서 보호나 정신적 지지를 받기 위해, 혹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개신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104). 이렇게 한편으로는 군사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선교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편으로는 군사정부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개신교는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개신교 관계자들이 획일적으로 피노체트 정부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피노체트를 지지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이 모든 개신교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교회가 독재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82년에 '기독교 우애회'(Confraternidad Cristiana de Iglesias)를 결성하여 군사독재의 억압과 부정을 거부하고 예언자적 자세를 유지한다고 선언했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개신교가 정치지도자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에서 개신교의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신교가 군사정권 시절에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그것은 개신교 세력이 이미 상당히 성장해서 정치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의 선거에서 개신교 관계자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개신교에 우호적인 후보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IV.2. 제도적 요소

종교활동을 촉진시키려면 종교관계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종교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장벽이 적어지면 자연히 종교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Gill 1999, 294). 칠레에서는 일찍부터 천주교이외의 종교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법이 제정되면서 개신교의 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세기까지는 천주교가 칠레 정부의 인정을 받는 독점적 위치를 고수했다. 그렇지만 이런 법적인 지침은 실제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가 선교를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개신교 선교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Thurston 2000, 1194-1195).

첫째, 유럽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신들의 종교를 가질 자유를 주장하면서 종교적 다원화를 위한 기본적 여건이 발생했다.

둘째, 헌법에 의해 천주교 이외의 종교행위를 배제하는 규정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고, 개신교 집단들은 정기적으로 공공연하게 예배를 봐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셋째, 적지 않은 수의 칠레 정치인들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반종교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서 천주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게도 법적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적 관용으로 인해 종교가 더 이상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1925년에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완전하고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종교조직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칠레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Thurston 2000, 1197). 결과적으로 1925년에서 1973년 사이에 종교적 신앙과 행위의 자유가 확실하게 인정되었다. 이런 제도적 정비의 덕택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북미지역에서 들어왔고,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시기에 개신교 인구가 크게 늘었다.

피노체트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제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촉진되는 동시에 제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계엄 상태가 계속되면서 일상적인 자유가 제한되었고, 종교의 자유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사정부는 의심스러운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 예를 들면 1973년과 1976년 사이에 정부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명목으로 수백명의 개신교와 천주교 성직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 고문, 처형하였다(Thurston 2000, 1231).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의 개신교 세력이 피노체트 정부를 지지하면서 개신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서 종교활동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피노체트가 물러난 다음에 1989년 이후에 실시된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피노체트를 반대하는 중도좌파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자유가 전혀 없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종교집단에게 평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9년에 정부는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추진하였다.

천주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법의 제정에 반대했다(Thurston 2000, 1233-1234), 첫째, 법의 개정으로 향후에도 천주교에 불리한 법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새로운 법은 천주교의 정관이 칠레와 바티칸 사이에 체결된 국제적 협약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법은 교회법을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법이 교회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해 구속될 수 있게 만들었다. 넷째, 이 법으로 인해 천주교는 150년 동안 유지해왔던 법체계의 혜택을 상실할 것이다. 다섯째, 이 법 때문에 종교조직이 해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법은 2002년에 3월에 ‘종교법’(Ley de Culto)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천주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종교간의 차별이 금지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천주교회 이외의 종교조직은 세금면제나 기금을 수집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비영리 단체나 종교와 관련된 단체로 등록해야만 했다. 물론 이런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종교집단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주어지지만 법적·경제적 혜택은 제공받지 못한다. 과거에는 약 800개의 조직이 사법부에 등록되었었다(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03). 당시에 도 정부가 종교집단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법적 지위를 강탈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새로운 법에 의해 종교단체는 사기업보다는 종교단체에 적절한 현장을 마련할 수 있고, 학교, 클럽, 스포츠 조직 같은 부속기관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조직은 공공병원이나 교도소, 군대에 사제를 둘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보이지 않는 방해로 인해서 천주교 이외의 종교가 학교나 군대 등의 공공기관에 사제를 두는 것은 아직까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제도적인 정비로 칠레의 개신교는 효율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종교활동이 한결 용이해졌다.

#### IV.3. 경제적 요소

개신교는 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 칠레의 사례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이후로 물질적 변화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 중에 개신교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

면서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 개신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Lagos Schuffeneger and Chacón Herrera 1987, 28; Willems 1967). 1960년대의 개신교 신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천주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도시사회에 적절한 연결망이나 가족이 없는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 이었다(Lalivie d'Epina y 1969). 전통적으로 지주계층과 권력층을 옹호하는 천주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었다. 이들은 개신교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였다.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피노체트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국가경제를 개편했다(Thurston 2000, 1203). 군사정부 아래에서의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시카고 대학의 영향을 받은 민간 기술관료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1975년이 되면서 자유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제도화 되었다. 정부는 관세를 인하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적자 예산을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자유화와 사유화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76년에서 1981년 사이에 칠레의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서 이 시기를 '칠레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경제성장은 1980년대 초의 외채 위기까지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계속되었다. 이 기간동안 개방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대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었다. 과일, 목재, 생선 같은 제품의 수출도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들의 수출량은 전통적인 수출품목이었던 구리와 맞먹었다. 1970년대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에서의 소득분배는 매우 불평등했고 실업률은 두자리 수를 유지했다.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비공식부문의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이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소고용'이라는 공공정책을 제시하였다.

1982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경제침체가 시작되면서 칠레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많은 기업이 도산되었고 실업률은



30%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빈곤층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편, 경제의 자유화와 더불어 군사정부는 사회보장, 노동쟁의, 건강보험, 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일련의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런 정책은 작은 중앙정부를 지향하면서 행정부를 탈중앙집권화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국가 기능을 민영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복지문제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지면서 빈곤층의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1990년대에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에 칠레는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룩했고 안정을 찾아나갔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경제 성장은 지속되었지만 빈부격차와 실업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사회주의자였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보수적인 호아킨 라빈 후보를 물리치고 2000년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에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던 수출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였다. 게다가 인접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곤경도 칠레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공교육센터의 1991년 조사자료를 보면 개신교 인구의 52.1%가 가난한 집단에 속하며 단지 2.3%만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를 보면 상층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15%를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21.8%를 점유하고 있다. 즉, 주로 가난한 천주교 신자들이 경제적 고통과 혼란의 시기에 개신교로 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신교 집단 중에서도 오순절 교회를 보면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 신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이나 건강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 즉 칠레사회의 민주화와 근대화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따름이었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102). 오순절 교회는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회적 격리와 소용돌이치는 경제적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교회는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오순

절 교회의 성장이 주춤한 때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여러 공공정책이 실시되었던 1960년대뿐이었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107). 결과적으로 칠레의 오순절 교회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Kessler 2001, 324).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에 많이 유입되면서 개신교 신자들은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이등시민이라는 편견이 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Thurston 2000, 1242).

그렇지만 앞으로도 개신교가 계속해서 빈곤층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이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칠레의 민주화 이후에 이제는 개신교가 더 이상 정치세력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의 중심세력을 개신교회로 끌어들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IV.4. 사회문화적 요소

개신교의 성장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은 원주민의 존재 같은 종족성의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사회는 오랫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백인과 메스티소들을 위한 종교였던 천주교를 떠나서 개신교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다(주종택 2004, 19-20). 칠레의 경우에는 비교적 개신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종족적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2002년의 인구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주민이 비교적 많이 사는 3개 지역인 비오비오, 아라우카니아, 로스 라고스의 개신교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원주민의 수와 개신교 인구 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오비오 지역은 전체 인구 1,859,546명 중에서 원주민이 54,078명으로 2.91%에 불과하지만 개신

교 인구의 비율은 30.12%이다 다음으로 아라우카니아 지역은 전체 인구 867,351명중에서 원주민의 수는 204,195명으로 23.54%나 차지하지만 개신교 인구의 비율은 25.39%로 비오비오 지역보다 조금 낮다. 마지막으로 로스 라고스 지역은 전체인구 1,066,310명중에서 원주민의 수는 101,733명으로 9.54%를 차지하지만 개신교 인구의 비율은 19.38%밖에 되지 않는다. 즉 아라우카니아 지역만 원주민의 존재가 개신교 인구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비오비오나 로스 라고스 지역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칠레에서는 전체적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4.58%(전체 인구 15,116,435명 중에서 692,192명)에 불과해서 원주민의 수가 조금 적은 편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보다는 원주민이 개신교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칠레 원주민들이 도시에 거주(산티아고 지역에만 191,362명으로 아라우카니아 지역의 원주민 수와 비슷)하고 있어서 원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원주민성이 독자적으로 개신교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 개신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비오비오나 로스 라고스 지역은 19세기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은 이주자들이 거주하면서 개신교도 따라 들어왔고 이것이 이 지역의 개신교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창기에는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 등 외국과의 교역이나 외교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개신교가 출발하였으나, 19세기 후반부터 개신교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곳은 독일인들이 많이 이주해온 남부지역이었다. 독일인과 함께 들어온 루터교가 1950년부터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를 포함하여 푸에르토 몬트, 발디비아(Valdivia), 오소르노(Osorno), 칠로에(Chiloé) 섬, 차미사(Chamiza), 볼칸(Volcán), 푸에르토 바라스(Puerto Varas) 등 남부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Claro Jara 2001, 21).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오순절 교회도 이 지역에서 급격히 성장했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어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신교에 대해 우호적이고 천주교와의 갈등도 크게 나타

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주자들이 새롭게 들어온 개신교에 대해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천주교와 개신교 상호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한 것이 개신교의 성장에 상당히 유익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것은 칠레사회에서 천주교와 기독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 종교의 신자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 V. 결론

칠레사회는 독립 이후에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변화에 맞게 새로운 이념이나 문화요소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개신교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 태도와 더불어 제도적, 법적인 체제가 확립되어 천주교의 특권이 점진적으로 사라진 것도 개신교의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군사독재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의 개신교 세력이 이에 동조하면서 사회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경제분야에서 개방화와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시되면서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된 많은 하층계급들이 개신교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칠레에서는 천주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기초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이들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칠레에서 개신교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의 폐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계급분화의 확대, 도시나 농촌 지역의 빈곤층의 증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개신교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칠레 사회만의 독특한 요소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개신교가 들어오던 초창기에는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미약한 천주교의 저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종족성에 있어서 원주민이 적었던 대신에 유럽 출신의 이주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개신교를 성장시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정치적·법률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치인들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등장하면서 개신교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개신교 집단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선교활동을 유리하게 전개했다고 하겠다.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교적 개신교의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 국가에 속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에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오래 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사이의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멕시코와 같이 살인, 추방, 방화, 폭행 같은 사건은 비교적 드물었다. 종종 개신교도들이 천주교의 축제를 방해하고 마리아의 상을 파괴하는 일도 있으며,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에서 소란스럽게 예배를 보거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한다. 또한 통일교회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20여개의 사교집단을 선정해서 칠레사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명분하에 조사를 해서 법적 지위를 취소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El Mercurio 2001년 4월 5일, Diario Las Ultimas Noticias 2001년 4월 8일). 그밖에도 모르몬교가 미국의 CIA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에 의해 일부 천주교 신자들이 폭발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Stoll 1990, 106). 이런 일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개신교가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거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신교 성장의 향후 과제는 개신교 집단 내부의 여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개신교 성직자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 빠른 기간에 목회를 할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훈련이나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원로 성직자들에게서 전해들은 말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111). 즉 개신교 지도자들의 열정과 믿음, 진실성은 대단하지만 지적인 훈련이 부족해서 지식인을 비롯한 학생들을 종교적으로 이끌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젊은 층이 주도하던 개신교의 성장전략에 부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신교 내부의 분화와 다양한 교파의 존재이다. 예를 들어 보면 1,500만 정도 되는 칠레에서 오순절 교회만 1,500개의 분파가 있다(Cleary and Sepúlveda 1997, 112).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칠레에서도 개신교 집단의 분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집단이 세분화되면서 새로운 이념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새로운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집단의 동질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칠레의 개신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신교의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 개신교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은 개신교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칠레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세속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근래에 크게 늘어나고 또한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과거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에 직면해서 개신교가 칠레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Abstract

Chile is a country where the number of Protestan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ince late nineteenth century. Chilean Protestant churches have experienced sustained growth since the 1930s. A slight deceleration occurred in the 1960s, but steady growth resumed in the 1970s and 1980s. According to the 2002 national population census, 17 percent of total population belong to Protestant Church. Among the many Protestant sects, the growth of Pentecostal churches is noticeable. The success of protestantism in Chile is caused by several historical, political, leg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Initially, the growth of Chile's non-Catholic community stemmed primarily from the arrival of Protestant immigrants and workers and the activities of Protestant missionaries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Still many German immigrants in the Lake District are heavily involved in Protestant religious activities together with Mapuche Indians.

For Protestant churches, relationship with prominent political leaders was essential in establishing social space in the society. The most well-known case of Protestant support for right-wing dictatorship occurred in Chile after the bloody military coup of General Pinochet. Since then, many Protestan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Protestant leaders have become increasingly active in socio-political activities.

Next, less restrictive laws regulating religious organizations in Chile lower the cost of consuming religion, thus leading to an increase in religious diversity. Due to a series of legal changes concerning religion since 1925, Chile became one of the most liberal nations in the matters of religion. Protestant churches took advantage of this enactment of legislation in their religious missions.

Like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the growth of Protestant churches is closely related with mounting poverty and economic

pressures in the society. Evangelical growth in Chile emerged in those sectors of society undergoing rapid change caused by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neoliberal economic development. Consequently, the growth of Protestantism in Chile has been facilitated in period when large sectors of the population have experienced heightened social exclusion.

Key Words: Chile, Protestantism, Religion, Neoliberalism, Socioeconomic Change  
/ 칠레, 개신교, 종교,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적 변화

논문투고일자: 2004. 09. 05

심사완료일자: 2004. 10. 30

게재확정일자: 2004. 11. 20



## 참고문헌

- 주종택(2000),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종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2, pp. 331-360.
- \_\_\_\_\_ (2004), 「멕시코의 사회변화와 개신교의 발전」,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1, pp. 5-48.
- Bowen, Kurt(1996), *Evangelism and Apostasy: The Evolution and Impact of Evangelicals in Modern Mexico*,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Claro Jara, Marcia Rose Mary(2001), "Iglesia Católica frente al crecimiento Protestante, aspectos sociales y morales," tesis para licenciatur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 Cleary, Edward L. and Juan Sepúlveda(1997), "Chilean Pentecostalism: Coming of Age", in Edward L. Cleary and Hannah W. Stewart-Gambino(eds.), *Power, Politics, and Pentecostals in Lat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pp. 97-121.
- Collier, George A.(1994), *BASTA!: Land and the Zapatista Rebellion in Chiapas*, Oakland: Food First.
- Gill, Anthony(1999), "Government Regulation, Social Anomie and Protestant Growth in Latin America: A Cross-National Analysis"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1 No. 3, pp. 287-316.
- Gill, Lesley(1993), "Religious Mobility and the Many Words of God in La Paz, Bolivia," in Virginia Garrard-Butnett and David Stoll(eds.), *Rethinking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 180-198.
- Lagos Schuffeneger, Humberto and Arturo Chacón Herrera(1987), *Los Evangélicos en Chile: una lectura sociológica*, Concepción, Chile: Literatura Americana Reunida.
- Lalive d'Epinau, Christian(1969), *The Haven of the Masses*, London: Lutterworth.

- Library of Congress(1994), *Country Studies: Chile*,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Löwy, Michael(1996), *The War of Gods: Religion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London: Verso.
- Parker, Christián(1996), *Popular Religion and Modernization in Latin America: A Different Logic*, Maryknoll, N.Y.: Orbis.
- Rostas, Susanna(1999), “A Grass Roots View of Religious Change Amongst Women in an Indigenous Community in Chiapas, Mexico”,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18, No. 3, pp. 327-341.
- Stewart-Gambino, Hannah W. and Everett Wilson(1997), “Latin American Pentecostals: Old Stereotypes and New Challenges”, in Edward L. Cleary and Hannah W. Stewart-Gambino(eds.), *Power, Politics, and Pentecostals in Lat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pp. 227-246.
- Stoll, David(1990), *Is Latin America Turning Protestant?: The Politics of Evangelical Growt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hurston, Patrick J.(2000),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Liberty in Chile, 1973-2000”,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Vol. 2000, No. 3, pp. 1185-1272.
- Westmeier, Karl-Wilhelm(1999), *Protestant Pentecostalism in Latin America: A Study in the Dynamics of Missions*,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 Willems, Emilio(1967), *Followers of New Faith: Cultural Change and the Rise of Protestantism in Brazil and Chile*,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기타자료 -

www.country-studies.com

INE, XVII Censo de Población y VI de Vivienda, 2002

INE, XVI Censo de Población y V de Vivienda, 1992

INE, XIV Censo de Población y III de Vivienda, 1970

INE, XII Censo de Población y I de Vivienda, 1952